총선땐 '소통' twitter 〈트위터〉 끝나니 '먹통'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 '민심 창구' 약속 물거품

초선들 특히 심해 … 박지원·김선동 의원은 꾸준히 소통

광주·전남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4·11 총선 이후 트위터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트위터를 유권자들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하면서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트위터 이용을 거의 끊어버렸다. 지역민과의 소통창구로 삼겠다던 당선자들의 약속이 처음부터 물거품이 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일보가 1일 광주·전남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13명의 트윗 횟수(4월 1일~11일, 12일~28일·리트윗 제외)를 분석한 결과, 4·11 총선 운동기간인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트윗(글)은 762건이었다.

반면, 총선 직후인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트윗은 311건으로 40.8%나 줄었다. 하루 평균 트윗 횟수는 총선 이전 69.3건에서 18.3건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의원 한 명당 트윗 건수는 58.61건에서 총선 이후 23.92건으로 줄었고, 일평균 게재건수로 따지면 5.3건에서 1.4건으로 감소했다.

광주 서구 을 오병윤 당선자는 205건(1일~11일)에서 14건(1일~11일)으로 줄었다. 지난 13일 이후엔 단 한 건의 글도 게재하지 않았다.

광주 서구 갑 박혜자 당선자의 트윗도 202건에서 29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박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지지호소는 물론 유세 일정, 여론조사결과 발표, 공약 소개 등 트위터를 활발하게 이용했다. 박 당선자는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고장 난데다, 각종 일정 등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현재도 하루 1~2건 이상 트윗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 갑 강기정 당선자는 33건에서 10건으로, 장흥·강진·영암 황주홍 당선자도 11건에서 4건으로 트위터 활동이 크게 줄었다. 이 밖에도 박주선(동구)·장병완(남구)·임내현(북구 을)·김동철(광산 갑)·우윤근(광양) 당선자의 트위터 이용실적도 4·11 총선을 전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11 총선 이후에도 트위터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당선자도 있었다.

김선동(순천·곡성) 당선자는 4건에서 57건,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10건에서 32건으로 각각 늘었다.

박지원(목포) 당선자는 4·11 총선이 끝난 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지역민 등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11일엔 164건, 12일~28일엔 120건의 트윗(글)이 게재됐다.

특히 초선 당선자들의 트윗 횟수가 재선 이상 당선자들에 비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초선 당선자 5명의 트윗 횟수는 448건(1일~11일)에서 58건(12일~28일), 재선 이상 의원들은 314건에서 253건으로 줄었다. 초선 당선자들의 트윗 횟수가 대폭 준 이유는 19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아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개시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에서 김성곤(여수 갑), 주승용(여수 을), 이윤석(무안·신안), 김승남(고흥·보성), 김영록(해남·완도·진도), 배기운(나주·화순) 당선자 등 6명의 트위터 이용실적은 제외했다. 4·11 총선 직후 트위터 계정 주소를 삭제했거나 처음부터 주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트위터=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 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 2006년 3월 처음 개설됐다.

18대 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59개 처리될까?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이 일제히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마쳤다"며 "오전 10시에 의총을 열어 논의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대되는 민생법안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한 59건의 계류 법안. 여기에 본회의에 계류 중인 6건까지 합칠 경우 본회의 처리 안건만 6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인터넷으로 수입 쇠고기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관리법이다.

또 중국 어선 단속 강화와 관련된 배타적경제수역법과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법,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법,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를 기다리는 중요한 민생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59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원 부녀자 살인 사건으로 필요성이 시급해진 112 위치추적법도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민생법안으로 지적된다.

다만,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개최의 결정적 변수는 2일 오전 10시 열릴 새누리당 의총 논의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 일부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 상정을 본회의 개최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59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일 광주 북구청 농축산유통담당 직원들이 용봉동의 한 수입육 유통업체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우병 소 살코기는 먹어도 돼"

농림부장관 발언에 국회 '발칵'

검역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의 대처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미국에 파견된 광우병 민관조사단이 돌아올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든 중단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 2008년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동영상을 제시한 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수입 중단은 고사하고 검역중단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육우만 수입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10년7개월짜리 젖소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서 장관은 '소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물질을 제거할 경우 광우병에 걸린 소도 살코기는 먹어도 된다'고 밝혀 여야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온 나라가 광우병 불안으로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농식품부 장관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그렇게 극단주의적이고 확신에 찬 발언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증폭되게 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우병 농장도 못 가는 광우병조사단

한국으로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현지조사단이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DC로 입국한 조사단은 1일 농무부 등을 방문, 존 클리포드 수석수의관(CVO) 등 미국 측 검역당국자 및 전문가들과 소 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진단 방식, 현장조사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날 오후 국립수의실험실(NVSL)이 있는 아이오와주(州)로 이동, 실험실을 점검하는 한편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문제의 광우병 젖소가 사육된 캘리포니아주를 직접 방문,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리 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장 주인이 동의하지 않아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모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사태' 이후 주미대사관에 파견된 검역관도 현지 조사에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그러니 소가 웃을 일이지요